

“어린이들은 좋겠다”

KIA 타이거즈·광주 FC 5일 어린이날 행사 풍성

KIA 타이거즈와 광주 FC가 어린이날 이벤트를 펼친다. 5일 KIA와 넥센의 경기가 열리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는 낮 12시부터 어린이 스포츠왕 이벤트가 진행된다. 1루 내야 입구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행사가 펼쳐진다. 그라운드에서는 식전 행사로 오후 1시부터 30분 동안 어린이와 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다이아몬드 미션 계주’ 가족 이벤트가 열린다. 경기 종료 후에는 맨 버십과 어린이회원을 대상으로 그라운드 체험 이벤트와 캐치볼, 포토타임 등의 행사인 ‘아빠 엄마와 함께 캐치볼’이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날 시구는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소아암병동에 입원 중인 신명준(15) 학생이 하고, 애국가에 같은 병동에 입원 중인 강지운(8) 등 어린이 환자들이 부른다. 입장 어린이 1000명에게는 팔도라면과 어린이용 음료수가 증정된다. 경기는 오후 2시 시작된다. 광주 FC도 5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 FC와의 홈경기

에서 광주시, 시교육청, 어린이재단 등과 함께 ‘엘로 광주FC 오~오! 축구장 자리주삼’이라는 주제로 지역 유치원 및 초등생과 굿네이버스,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초청해 어린이날 행사를 갖는다. 이날 어린이들이 구단주가 돼 선수단 격려와 시축,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게 되며, 남문과 북문에서는 캐리커 페레이드가 펼쳐진다. 또 페이스페인팅, 비눗방울놀이, 풍선아트 등 체험행사와 함께 불우이웃돕기 팝콘·솜사탕 무료 나눔행사, 남양유업·여명·코카콜라 시음행사 등도 진행된다. 선수들과 함께하는 자리도 준비된다. 오후 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기장 남문 매표소 앞에서 경기 출전 선수를 제외한 선수단 전원이 참가하는 팬 사인회와 포토타임을 열린다. 푸짐한 경품도 마련됐다. 어린이 날을 맞아 삼성 노트북과 자전거 55대, 빙스 및 알래스카 식사권, 영화티켓, 금호패밀리랜드 자유 이용권 등 3505개의 경품이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로고·선수 이미지 들어간 교통카드 제작

광주 FC가 스폰서 협약 업체인 한페이지와 공동으로 구단 로고와 선수 이미지가 들어간 교통카드를 제작한다. 교통카드는 모두 4가지 종류로 최장신인 북이(201cm)와 유종현(196cm)이 주앙파울로를 들어올리는 모습과 김은선, 이승기, 박호진이 뛰어다니는 모습 등을 재미있는 그림으로 표현했다. 선수단 캐릭터 이미지는 웹툰작가인 김봉치가 제공했다. 광주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400매를 제작한 뒤 SNS 이벤트 등을 통해 축구팬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또 MD상품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트랙에서 열린 전국꿈나무 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 여자부 200m 결승에서 참가 선수들이 질주를 하고 있다.

광주 체육중 김성욱 꿈나무 육상 은메달

육상 꿈나무들의 질주가 펼쳐졌다. 제14회 전국꿈나무 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가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마무리 됐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 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초등부(4~6학년)와 중등부(1·2학년) 350명이 참가해 71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광주 체육중 김성욱은 2일 남중부 창던지기 결승에서 36m88을 던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이번 대회 각 종목 1~3위에게는 상장 및 메달이 지급됐으며, 대회 종목별 1~5위까지 300명이 1차 꿈나무로 선발됐다. 훈련 지원금과 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육상 꿈나무는 2차 체력측정을 통해 최종선발된다. ▲그냥 이마에 K쓰고 나가야겠어요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나지완 지독한 ‘홈런 갈증’



2009년 한국시리즈 KIA V10 완성 보물 방망이 다시 꺼내들고 타격

16경기서 홈런 0 “한번 터지기만 하면 되는데..”

“한번 터지기만 하면 되는데..” KIA의 나지완은 2일 SK와의 홈경기를 위해 애지중지 보물처럼 여기는 방망이를 챙겨들고 경기장에 나왔다. 배팅할 때는 차마 들지 못하고 몇 차례 스윙을 하는데 조심조심 사용한 이 방망이의 역사는 2009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10월24일 SK와의 한국시리즈 7차전, 5-5로 맞선 9회말, 나지완은 이 방망이를 들고 타석에 섰다. 그리고 SK 채병용을 상대로 의아 좌측 상단에 떨어지는 큼직한 홈런을 때려내며 12년만의 KIA 우승을 알렸다. 3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방망이를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지완은 이 방망이를 가보로 삼겠다고 보물처럼 간직해 왔다. 나지완이 KIA의 ‘V10’을 완성시킨 역사의 방망이까지 들고 경기장에 나온 이유는 바로 ‘한방 갈증’. 나지완은 이병호와 김상현의 부상 공백을 메우려 거포로 기대를 모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16경기에 출전한 나지완은 58타수 15안타로 0.259의 타율과 7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통산 두 번째 3루타를 때려내기도 했지만 홈런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나지완은 2010년에는 개막 후 4경기 만에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팀의 연패를 끊고 시즌 첫 승을 안겨준 적이 있고, 지난 시즌에도 4월12일 일찌감치 홈런포를 가동시켰다. 하지만 올 시즌은 개막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서 속이 개망해 갔다. 나지완은 “이상하게 장타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는데 답답하다. 한번 터지면 잘 풀릴 것 같은데 그게 안돼서 고민이 된다”며 “끝내기 한방의 기를 받아보려고 방망이를 들고 나왔다. 차마 공은 때리지 못하고 스윙하는데만 썼다”고 웃었다. 보물 같은 방망이까지 들고나와 공을 들었지만 이날 경기는 우천취소가 되면서 나지완의 한방 시험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방에 목마른 나지완의 ‘방망이 의식’ 효험은 3일 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일 KIA와 SK는 김진우와 마리오를 선발로 내세워 시즌 세 번째 대결을 벌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덕아웃 말말말

▲많이도 맞았네 = 양현종의 2군 등판 기록을 확인한 선동열 감독. 양현종은 이날 한화의 2군 경기에 선발 등판해 3과3분의1이닝 11피안타 2볼넷 2탈삼진 7실점으로 부진했다. ▲그냥 이마에 K쓰고 나가야겠어요 =

윤석민 “모자 자꾸 벗겨져 이마에 ‘K’ 써야겠어요”

윤석민, 모자 사이즈가 안 맞아서 공을 던질 때마다 벗겨진다면서. ▲설령설령하는 줄 알아요 = 최희섭, 평소 땀이 많이 나지 않는 체질이라 사람들이 훈련 열심히 안하는 줄 안다면서.

훈련할 때 방망이는 잘 돌아가는데 안타를 못치고 있다면서. ▲아 진짜 이름을 바꿔야겠네 = 이름에 우가 들어간 투수 김진우, 훈련 시간에 비가 내리자. 소나기가 오락가락하면서 이날 경기가 열리지 못하는 등 김진우의 등판 경기는 5번이나 우천 취소됐다. 김진우는 ‘큰뜻 우’를 쓰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 - 221 - 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25,000 부터~ (세금 별도)